

전남사랑 서포터즈 모집 열기...올 들어서만 7000명

전지훈련장, 봄꽃축제 현장 등에서 펼친 캠페인 효과 “가입 후 할인 1석2조” “내친 김에 휴가도 전남으로”

전남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동계 전지훈련장, 진해 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장 등을 찾아 전남 고흥사랑 실천 캠페인 홍보를 펼쳐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7000명을 모집했다.

특히 전지훈련차 전남에 체류하는 선수·임원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모집 활동을 펼쳐 비수기임에도 할인가맹점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인 진해 군항제와 여의도 봄꽃축제장에서는 전남도와 일선 시·군 직원들이 직접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서포터즈 가입을 희망하는 방문객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광양에 전지훈련 동지를 마련한 구기종목의 한 선수는 “2년째 전남으로 전지훈련을 왔는데 이번엔 서포터즈에 가입해 자주 가는 음식

점에서 할인혜택을 받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봄꽃축제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지방소멸 위기를 뉴스로 접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했는데, 전남도의 서포터즈 육성사업이 신선하게 다가온다”며 “전남을 응원하는 동반자로 가입했으니 올 여름 휴가는 전남에서 보내겠다”고 밝혔다.

강경문 전남도 고흥사랑과장은 “전남을 사랑하고 힘찬 응원을 약속하며 45만 서포터즈 가족이 된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5월과 8월에 열리는 서울 장미축제와 대구 치맥 축제 등 대규모 축제·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전남 고흥사랑 열기를 한층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신규 가입자와 추천인을 대상으로 1천



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총 252명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남도장터 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지역 농수축산물 촉진과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전남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만 명 모

집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45만 명이 가입했다.

가입자에게는 ‘전남사랑 도민증’을 발급해 전남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식당·카페 등 230여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1만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 하수도 보급률 2030년까지 90% 달성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90%를 목표로 중기 하수도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라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83.9%로, 전국 평균(95.1%)을 밑돌고 있다.

5개 주요 사업인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도시 침수 대응을 중심으로 기존 투자 예산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9764억 원 규모다.

이 기간 연도별로 각 시·군에서 제출한 하수도사업계획 중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물 재이용관리계획, 타당성·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여부 등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을 정했다.

또 도시 침수와 악취, 연 3회 이상 반복적 수질 기준 뿐 아니라 노후화 등 성능·안전 저하 시설 개선,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일부 지자체의 사업도 포함했다. 특히, 자체 재정을 활용한 선투자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고려해 반영했다.

도는 중기 하수도사업계획을 통해 시·군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현안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과 면단위, 도시침수 대응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3년 2265억 원, 올해 3473억 원의 하수도 분야 국고확보 성과를 거뒀다. 내년도도 총사업비 1조683억 원 규모의 하수도 현안사업 국고(6461억 원)를 환경부에 신청한 상태다.

서선욱 기자

광주시, 도시텃밭정원 ‘기후농부학교’ 개강

광주시는 지난 6일 도시텃밭정원에서 ‘2024년 기후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광주서구가족센터 등 시민 공동체 12개소, 80여 명이 참여해 ‘어떤 작물을 언제 심을까?’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고 퇴비 살포 등 농작업을 실시했다.

기후농부학교는 공익형 공동체 텃밭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도시농부 양성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매년 4~12월 20회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들은 매월 격주 토요일 도시텃밭정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이론교육과 실습을 하고 텃밭정원을 가꾸는 공익활동을 한다.

도시텃밭정원은 체험, 교육, 휴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도시농업공간으로 도시농업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유덕동 조성됐다.

광주시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가치 확산을 위해 ▲기후농부학교 ▲도시농부 어울림 한마당 ▲농업 인문학 시민특강 ▲찾아가는 도시농업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자치구와 함께 ▲공영 도시농업 농장(10개소) 운영 ▲어린이 텃밭 조성 ▲상자텃밭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권 기자

‘광주의 맛 전국에’ 광주시, 맛집 10곳 밀키트 제작 지원

광주지역 대표 맛집의 음식을 밀키트로 제작해 판매한다.

광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10곳을 선정해 주요 음식 등을 밀키트로 제작해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밀키트 상품개발 전문가 컨설팅과 상품 디자인 기획, 시제품 제작, 온오프라

인 판매, 마케팅 지원 등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화 개발 대상은 김치, 반찬, 광주 전통 시장상품, 광주대표 음식상품, 자원업체 자체 개발상품, 광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품 등 밀키트화가 가능한 모든 상품이다.

또 개발한 밀키트는 티론 플랫폼과 해당

점포를 통해 온·오프라인 판매되며 사회적 지시성과 끼니지원사업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은 대표 음식 소개가 포함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등을 광주경제진흥원생일지터단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오는 24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메뉴의 지역성 및 가치성 등 서류평가와 품질관리력 등 기술력, 제품 생산

력, 시장성 등을 살펴보는 현장평가 등을 종합 심사해 10곳을 선정, 오는 9월까지 밀키트를 개발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지역 대표 맛집 등의 메뉴를 밀키트로 출시해 온라인 진출까지 지원한다”며 “광주의 맛을 전국으로 알리고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민생경제 안정 총력전에 나선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 신속 집행에 나선다.

당초 목표인 54%보다 높은 60% 집행률을 목표로 상반기 안에 2,521억 원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난 4일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으로 민생 활력”

상반기 목표 집행률 54% → 60%로 높여, 2,521억 원 신속 집행

상황과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집행률 30% 미만인 사업과 5억 원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광산구는 선금 집행 활성화, 긴급입찰, 관급 자체 선고지, 공공부문 선결제 등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최근 편성된 1회 추경 예산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속해서 시민과 공유하며 상생의 분위기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조기 집행을 비롯해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

한 과감한 지원 대책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장기화된 복합적인 경제위기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민생안정 대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부서가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을 통해 위기 극복 방안을 찾는 ‘현장 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19일까지 시민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앞서 3월 말 열린 4월 지성회의에선 ‘함께 고민해 보는 민생활력 정책’을 주제로 전 직원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형택 기자

한국연륜진흥재단
Korea Time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익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	급여비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5.3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